

## 독립행정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 에너지분야 R&D의 전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

독립행정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는 일본의 에너지분야 R&D 전략성 강화를 위하여 「정부부처 간의 횡단적 종합계획의 입안·추진기능 강화」 및 「기초·기반 연구기능 강화」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정책제언을 제시함

- (정책제언) 에너지분야의 R&D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시야를 포함한 국가에너지종합계획과 과제탐색(사회적 기대발견연구)으로 움직여지는 에너지연구개발종합계획을 부처간 횡단적으로 입안하고 산학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체제와 기능을 강화해야 함
  - 사회적 기대발견연구기능과 연구개발계획입안 기능을 겸비하는 정책목적 기초거점연구를 정비하여 사회적 기대발견연구에서의 조언이 국가에너지종합계획 책정에 반영되어지도록 함
  - 정책결정자(make decision)층에 에너지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지니면서도 폭넓은 시야를 갖추고 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일정기간 채용해야 함
  - 상기 직무에 종사하는 인재발굴·육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축하면서 직무능력조건을 명확히 해야함

- (정책제언) 에너지분야의 연구·개발·실용화에 관계되는 연구자, 기술자, 행정담당자의 다양한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종합계획의 공유를 도모하면서 계획책정과정을 오픈화해야 함
  - 종합과학기술회에서 검토중인 「이노베이션전략협의회」 등의 체계를 산학관으로부터의 다양한 제언을 검토하는 場으로서 기능시킬 필요가 있음
  - 과학커뮤니티는 이러한 개방된 장에서의 객관적인 논의를 전제로 해야하며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함
- (정책제언) 에너지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연구개발과제의 장기간에 걸친 시도를 장려하기 위해 기초·기반적인 연구에 관계되는 계획의 기본방침을 고수해야 함. 에너지분야의 정책목적 기초연구거점을 정비하여 그것을 핵으로 한 異분야 연구자에 의한 과제해결을 위한 협력, 기초연구의 응용, 개발연구와의 연대를 촉진해야 함
  - 국가(정부)로서 취급해야 할 기초연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총예산의 일정비율을 사전에 확보한 후에, 연구내용의 평가·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적어도 10년정도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침을 명확화할 필요 있음
  - 에너지분야의 전략적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목적기초연구거점 기능을 강화하여, 이것을 핵으로 하는 네트워크형 연구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함

## □ 시사점

-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, 끊임없는 글로벌경쟁, BRICs 등의 급성장을 생각하면 일본의 연구개발투입여력(인력, 자금)의 상대적 저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.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문제 해결을 향한 종합적인 R&D전략 강화는 부족한 자원으로도 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임

자료 : エネルギー分野研究開発の戦略性強化, 科学技術振興機構(2011.8.30)